

3) 절골

철광(鐵鑛)이 있는 부근에 옛날에 사찰(寺刹)이 있었다 하여 이 지역을 절골이라 불려왔다.

제2절 금음2리(金音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사방이 산지(山地)로 둘러싸인 산간형 농촌 마을이다. 마룡산(馬龍山) 기슭에 있는 마을을 만산(萬山)이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직곡(直谷)이라 한다. 마을회관은 1999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금음리에서 분구(分區)되어 금음2리로 되었다. 1953년 1월 19일[면조례 제 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에 있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 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금음2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금음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3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등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음력 정월 10일에 제관(祭官)을 선정하고, 정월 15일 밤에 제관이 목욕재계 후 엄격한 규칙을 담아 마을 제사를 지낸다.

5. 전설

1) 곧은골(直谷)

마룡산(馬龍山)에서 발원(發源)되어 흐르는 작은 내(小川)를 따라 냇가에 곧게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곧은골(直谷)이라 부른다.

2) 마룡산(馬龍山)

평해읍과 후포면 지역의 최고봉(最高峰)[406m]으로 산세(山勢)가 웅대하고 수려하며 마치 용마(龍馬)가 달리는 모양과 같다 하여 마룡산(馬龍山)이라 하였다.

3) 만산(萬山)

마룡산(馬龍山) 아래에 있다 하여 그 산 이름에 따라 마을 이름을 지었는데 마룡산(馬龍山)의 음(音)이 변하여 만산(萬山)이라 하였다.

4) 장기암(將棋岩)

마룡산(馬龍山) 산정(山頂)에 있는 평평한 암반(岩盤) 위에 장기판(將棋盤) 모양이 있는데, 선인(仙人)들이 여기서 장기를 두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제3절 금음3리(金音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북쪽은 금음1리고, 서쪽에는 암산(岩山)이 있으며, 남쪽은 동해(東海)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금음리에서 분구(分區)되어 금음3리로 되었다. 1953년 1월 19일[면조례 제15호]에 평해면 후포출장소 관할로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금음3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금음3리로 되었다. 마을회관은 1998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현재 새로 신축하고 있다.